21세기 태양 철학의 대가

주체91(2002)년 5월 28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밝히신 명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은 자주적인 계급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것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것을 잘 알아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 열정을 높여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 자존심,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 수 없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 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 오랫동안 남의 압박을 받아온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동화책동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작은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 굴종사상이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남을 떠받들고 남에게 추종하는데로부터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입니다. 공미숭미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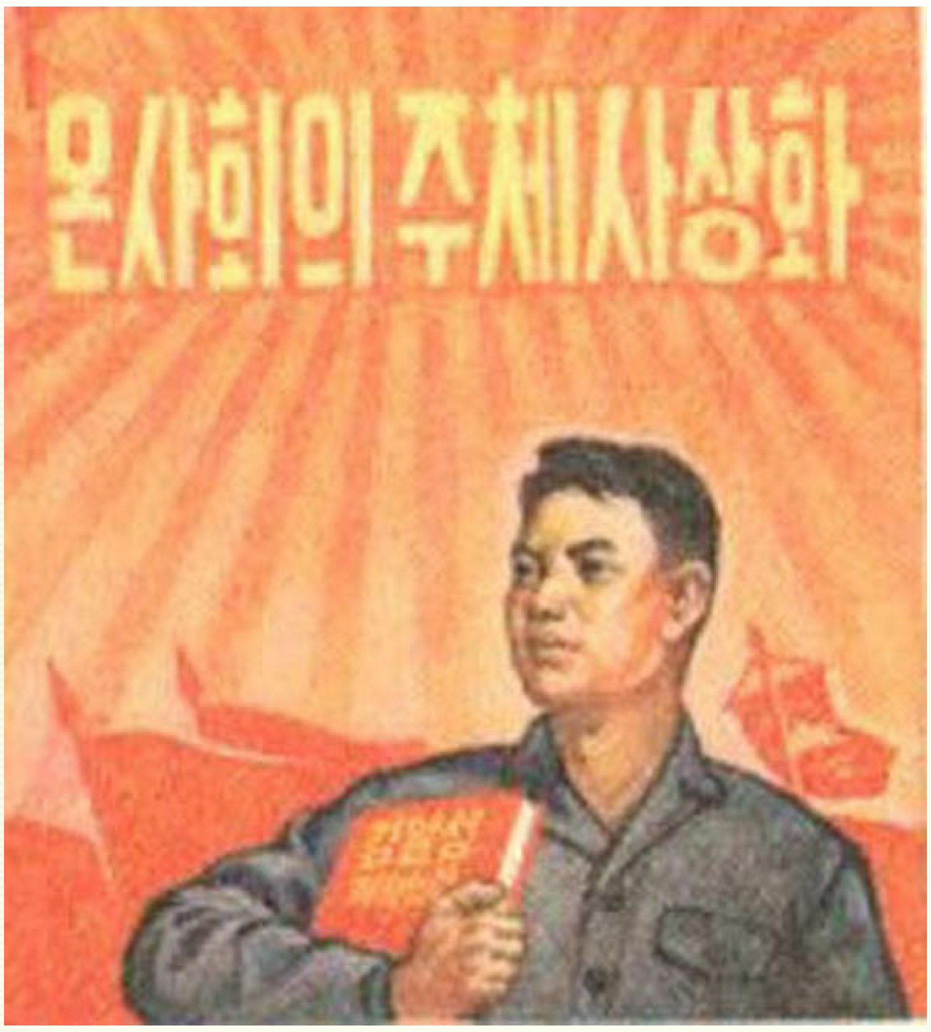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투쟁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대가

· 명언
· 2월의 선언
·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심화발전
· 사상론과 수령론
· 온 세계의 추앙
· 주체철학
· 철학
· 사상계의 거장
· 새 세기를 주도할 김정일사상
· 21세기를 조명해 본다
· 유명한 철학가
· 김정일영수님께서 정식화하신 시대의 지도사상, 김일성주의
· 세계적판도에서 김정일로작연구보급
·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한 불멸의 업적
· 총비서로작을 세계적판도에서 출판보급
· 김정일총비서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이 편지
· 김정일총비서의 5년간 사상리론활동에 언급
· 김정일총비서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회의참가자들이 편지
· ≪김정일선집≫ 제14권 출판
·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사상리론가
· 걸출한 사상리론가
·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 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 김정일총비서의 로작 530여건 출판
· 위대한 사상리론가
· 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 김정일총비서의 로작을 탐독하여야 한다

2월의 선언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자주시대의 향도리념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시대의 향도리념으로 선포하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력사적 근원에서부터 그 리론적 내용과 구조적체계에 이르기까지 사상리론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분석과 완벽한 습득을 성취한 수령의 걸출한 후계자만이 실행할 수 있는 대업이다.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집대성하고 정식화했던 엥겔스와 쓰딸린의 공적이 그들이 이루어낸 특기할 사상리론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 사변이였으며 불후의 리정표이다.

1974년 2월 19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변적 의미를 지닌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2월초순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민중의 일치된 념원과 의사에 따라 **김정일**령도자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한 직후여서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그분에게 쏠리고 있었다. 수령님에 의해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 대업을 맡으신 그분이 당과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떤 새로운 정치강령을 내놓으실것인가 하는 민중의 기대는 참으로 컸다. 하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그분의 정치적 구상을 정확히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그분의 사색과 구상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웅대한 것이였다.

바로 이런 때인 1974년 2월 평양에서는 그분의 발기와 지도밑에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가 두주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강습을 마감하는 2월 19일 오후, 영명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강습회장에 나가시여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중대 결론을 하시였다. 그것은 후계 수령으로 추대되신 후 전당, 전국, 전민을 향해 발표하신 첫 정책대강이였다. 바로 이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이 선포되였던 것이다.

오늘 이북민중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현대정치사업에 하나의 획선을 긋고 기념비적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 사변으로 일컫는 ≪2월의 선언≫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신 불멸의 업적을 두고 사람들은 탁월한 예지가 낳은 사상리론의 금자탑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를 그저 비범한 예지의 소산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일면적인 리해라 할 것이다.

력사적인 ≪2월의 선언≫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와 선포, 여기에는 근 10년세월을 두고 사색과 탐구를 계속하면서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일**령도자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깃들어 있다.

그분은 1964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무를 시작하신 첫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 공적과 한계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그 사상사적 지위를 밝히기 위한 방대한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선행고전가들이 전생애를 두고 저술한 저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였다.

≪…나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한 3년반동안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였습니다.
내가 분석평가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는 맑스의 ≪자본론≫ 5개 분책을 한권으로 계산하여 모두 31권입니다.
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달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감회깊이 회고하신 3년간의 집중적인 학술연구기간은 결코 안온한 서재에서 고전들을 탐독하는 그런 안이한 나날이 아니였다. 이 기간 그분께서는 항상 휴식을 뒤로 미루고 쌓이고 쌓인 피로를 쪽잠으로 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분망한 속에서 많은 시간과 정력의 소모를 요하는 로동계급의 1백년 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셨던 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3년간의 연구를 끝마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선포할 사색과 탐구를 중단없이 계속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무포의 낚시터≫에 대한 이야기는 모처럼 마련된 휴식의 짧은 시간마저 위대한 수령님으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에 바치신 그분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에 대해 전하는 감명깊은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1971년 가을 백두산지구의 혁명적 적지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어느날 측근일군들의 간청에 못이겨 그분은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유서깊은 전적지 무포에서 강물에 낚시줄을 드리우시였다. 그런데 한 수원이 미끼통을 들고 조심히 다가가보니 고기가 미끼를 연방 물어채고 있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그가 곁에까지 가까이 가서야 그분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말하던대로 무포의 경치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있으니 막혔던 생각이 확 트입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그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해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것의 탄생이 예감되는 순간이였다.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만주의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하시면서 항일의 전국을 전환시킬 대략, 백두산일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을 무르익히시였듯이 력사의 전환은 낚시터에서 이루어지는 듯 싶었다.

이에 앞서 1970년 5월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류사상사에서의 **김일성**주의의 위상에 관해 하신 뜻깊은 말씀은 수년간에 걸친 그분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에 대한 총결론이였다.

≪김일성주의는 현대의 기본사조이다. 선행사조와는 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체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는 수천년동안 인류의 예지가 도달한 과학리론의 총화나 집대성보다 더 높은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며 우리시대의 유일한 시대적 지도사상이다.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고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주체의 혁명학설이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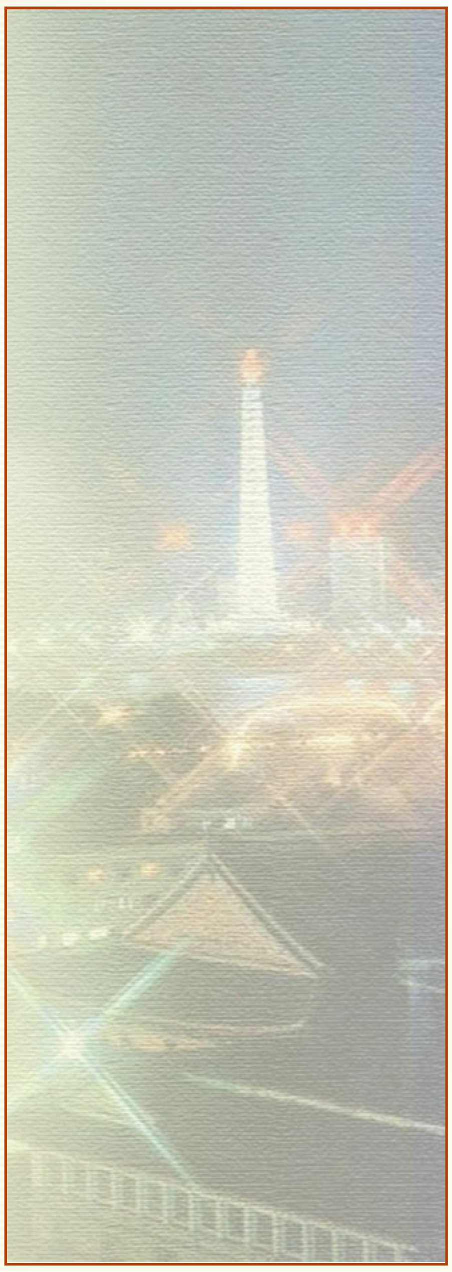
이같은 인류사상 최상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그 사상사적지위를 규정하는데서 최대의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그분은 새롭게 도출해내신 원리와 명제 하나를 놓고도 그 사상에서는 물론 표현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하자도 없도록 탁마의 공을 기울여 다듬고 또 다듬으시였다.

그분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있었기에 마침내 심원한 사상과 리론을 짧은 문장속에 압축한 주옥같은 명제들로 엮어진 불멸의 명저≪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가 집필되여 발표되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 저작에서 **김일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화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이 간명한 명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내용, 그 구성과 결합방식을 함축해 체계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 위대한 사상이 선행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정식화에는 **김일성**주의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구성체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민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민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 그리고 민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



로 이루어져있다는 리론적결정체가 담겨져있다. 이 정식화는 또한 **김일성**주의가 그 기초원리와 구성체계, 내용에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며 지도사상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최고봉의 혁명학설이라는 리해를 준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말속에 많은 사상을 담는다.≫는 어빙의 말과 ≪글쓰기의 기교는 곧 함축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한 체흡의 말이 오늘까지 하나의 명언으로 전해오듯이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창의력과 저술능력을 소유한 탁월한 사상리론가가 아니고서는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있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그와 같이 고도로 함축해 정식화할수 없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 특징에 관한 새로운 주체적해명이였다.

사람들은 현시대의 의미를 종전의 시대적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격동적인 시대의 본질적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분께서는 시대발전의 기본흐름을 주체적 시각에서 새롭게 파악하신데 기초하여 지난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거창한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입니다.

우리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입니다.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흔히 사상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상은 시대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시대적요청에 부응하여 출현한 선진사상, 향도리념은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기본사조로서 사회력사발전을 이끌고나가는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장구한 세월의 년륜을 새기며 흘러온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은 사상이 시대를 낳고 선진사상의 향도적 역할에 의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력사의 새시대는 위대한 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진전한다. 오늘 인류가 살고있는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주체사상의 광망아래 주체의 궤도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가 지나간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은 지난날 력사의 뒤안길에 밀려나 력사의 대상으로 소외당하던 민중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력사를 창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이것은 민중의 지위가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격상되고 소수 특권적 지배계급의 강요에 의해 력사를 창조해오던 민중의 피동적, 수동적 역할이 시대의 중심에서 력사발전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동적 역할로 전환되였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민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하도록 각성시켜 그들이 력사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고 력사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시대의 향도사상이 다름아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는 수많은 사상조류가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주체사상처럼 영광찬 새시대의 탄생을 가져오고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상은 일찍이 없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이렇듯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우리시대의 특징을 명철하게 규명하신데 기초하여 **김일성**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현시대와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확증하신 것이다. 새시대의 특징과 새로운 혁명사상 사이의 변증법적련관에 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야말로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향도리념으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신 여기에 그분의 거대한 리론적공적이 있다.

참으로 ≪2월의 선언≫은 인류의 사상리론발전과 해방위업 수행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2월의 선언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진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리정표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심화발전(1)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켜 자주시대의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사상으로 확고히 전화시키시였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 주체위업의 걸출한 령수로서의 그분의 위대성이 빛나고 있다.

주체사상을 종합,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과학성, 위대성을 밝히고 그 력사적 지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와 나아가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중대한 사업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민중의 자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수령의 위업의 승리적진전과 완성에 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저술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리론적내용과 틀에서 얼마나 크게 발전풍부화하시였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의 세사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시대의 향도사상은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변혁하기 위한 무기로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 수 있는 철학적세계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향도사상이 력사를 개척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려면 력사의 주체인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력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향도리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혁명의 주인인 민중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어야 한다.

주체사상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은 서로 뗄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는 지도적원칙의 원리적전제로 되며 지도적원칙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체사상의 구성부분과 그 상호련관성이 과학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유물변증법과 력사적유물론으로 골격이 세워진 맑스주의철학과 획분되는 주체사상의 독창성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였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사상의 중심차원은 ≪사람중심≫이라는 점이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강조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철학으로 규정한 이 명제에 주체사상의 창시 이전시기를 인류사상의 전사(前史)로 획분하는 근거가 있으며 주체철학이 선행한 모든 철학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밝혀져있다.

따라서 ≪사람중심≫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그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올바로 인식하는데서 전제적인, 출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중심≫의 함축된 의미를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철학의 사명의 각도에서 그것이 인간의 운명개척을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철학적고찰에서 인간을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주체철학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되였다는 것이 셋째 의미이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학문으로서 그 본성상 인간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세워야 한다.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느냐에 따라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주의철학은 자연과 함께 사회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이 환경의 산물일뿐만 아니라 환경자체를 변혁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줄수있는 전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쳤다.

인간운명개척의 완전한 해답은 주체철학에 의해 비로소 주어진다. 주체철학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세계의 한부분으로 보고 세계의 존재와 운동과정자체에 관한 설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힌데 토대하여 인간을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높이 세운다. 그리고 인간이 주동적으로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의 합법칙성과 거기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과 립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철학이 지난 시기의 모든 철학의 일면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철학의 절대적 우월성이 있고 주체철학을 발전완성시키신 탁월한 철인으로서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이 있다고 본다.

이어서 철학적방법문제 즉 주체철학이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철학적 방법문제 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근거지어진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철학문제를 평가하고 해명한다는것이며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이 되려는 사람의 립장에서 세계를 고찰하고 세계관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해 최초로 정립된 독창적인 철학적방법이다.

지난 시기 허다한 관념론철학과 맑스-레닌주의를 포함한 유물론철학들은 물질과 의식의 상호관계의 원리에 기초하여 물질 혹은 정신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는 철학적 방법에 의거해 세계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철학은 도대체 철학적 방법문제를 무엇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가 하는 문제로 리해하지조차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사상사에서 최초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느냐는 문제를 철학적방법의 문제로 새롭게 규명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고찰하며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철학적방법을 정립하였던것이다.

그러면 사람중심으로 세계를 고찰해야 할 리유는 무엇인가? 그 근거에 관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파하시였다.

≪그러면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철학적방법을 정립함으로써 명실공히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인간중심의 독창적인 철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을 새로운 독창적인 원리들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분께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이것은 인류의 철학사에 쌓아놓은 금자탑과 같은 빛나는 공적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가 분명히 해명될 때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해진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운명문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은 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로 압축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는 근로하는 민중이 력사의 주인이 되어 자기운명과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에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되는것이며, 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한 **김정일**령도자의 심오한 학문적경지와 빛나는 예지는 또 한번 지구촌의 철학가들과 활동가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심화발전시키신 그분의 리론적 공적에서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누구나 생각해본 문제이면서도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통속적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인듯하나 일단 철학이라는 학문과 결합시켜 상정하면 결코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사람의 삶과 운명의 문제이다. 그래서 고금동서의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 예술가들이 사람에 대해 사색하고 고민하고 론쟁하면서 전력을 기울여 탐구해왔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학설이나 사상은 사람이 무엇이라는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확한 존재적 의미와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

1 인간문제를 제일 먼저 철학적으로 고찰한 사람으로서 ≪너자신을 알라≫고 말한 쏘크라테스는 ≪불멸의 령혼≫을 사람의 본질로 보고 ≪도덕≫을 그 속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인간성을 사람안에 있는 동물성과 구별되는 정신적 제 특성의 총체라고 했다.

근세에 들어와 인간성을 깊이 고찰한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 그의 인간관은 리성적인간관과 감성적인 인간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이에르바하는 감성을 기초로 해서 지, 정, 의를 갖춘 사람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하는 사람을 인간성일반으로 파악함으러써 력사적, 사회적인 것, 실천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바로 이 같은 추상성이 ≪인간학≫이 넘지 못하는 한계였다.

인간에 관한 탐구는 맑스에 의해 하나의 획선을 긋는 성과를 거두었다.[2] 그러나 인간을 세계에서 자주적존재로 인식하고 그의 역할을 만능적존재로 끌어올린 것은 주체철학뿐이다.

2 맑스철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그것의 세가지 구성체계에서 각측면별로 고찰되여있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의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서 고찰되였고 변증법에서는 사람의 사유에서 작용하는 보편적 법칙이 고찰되였으며, 사적유물론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에서 고찰되였다. 요컨대 사람은 사회적관계의 총체라는 것이 맑스주의철학의 리해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인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자체의 자연사적인 운동과정에서만 고찰됨으로써 인간의 활동문제는 시야밖으로 밀려났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철학에서는 의식과 사유와 실천의 총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철학의 근본문제로 시발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득한 인류사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동안 인간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탐색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지만 오직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인간을 력사적으로 분석한 주체철학에서만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해명하고 그에 관한 리론적완결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자주성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이같은 세가지 본질적 특성은 상호 련관되여 통일적으로 발현된다.

이렇게 사람은 자주성을 통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며 창조성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의식성, 즉 사상의식적인 의지로써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주체사상은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인류사상 초유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이래 중단없이 론의되여오던 인간문제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장구한 세월의 력사를 거슬러 그 갈피갈피를 탐색하고 분석, 종합하여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사람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주체적세계관을 확립한 주체사상의 공적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내놓음으로써 이룩했던 력사적전환보다 더 근원적 의미를 가지는것이며 불의 발견과 같은 인류사 최초의 전환적사변보다 더 위대하다고 평해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람 즉 민중을 중심에 놓고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력사관은 한마디로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체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에서 민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기초적인 문제로 삼고 민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세운 민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다. 한마디로 그 요점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고찰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바로 이 점에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선행된 모든 력사관과 차원을 달리하는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력사관에 대한 고찰은 그 주체가 무엇이냐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다. 왜냐하면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가 있으며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는 사회력사적운동의 근본특징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리고 력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주체사관의 기초원리를 확정하시였다.

그분에 의하면 민중이 력사의 주체가 되는 근거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민중이 사회적운동의 근본원인이 되는 지향 즉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둘째로 민중이 사회적운동을 추진시켜나가는 창조적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력사의 참된 주체를 발견하고 민중이 력사의 주체임을 천명하신 것은 력사관의 발전과 사람의 운명개척에 대한 거대한 기여이며 이 또한 그분이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공적의 하나인 것이다.

(다음에 계속)